

說話와 濟州文學

玄 吉 彦*

목 차

1. 연구의 의미
2. 제주문학의 요건
3. 제주문학으로서 설화
4. 정 리

1. 연구의 의미

1-1.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하위 장르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중형으로 체계화시키는 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학은 인간과 사회, 우주에 대한 종합적 인식과 그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문학이 단순한 언어의 구조체계라는 형식적이고 개별적인 개념에서 좀 더 개방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공간적으로 우주적이며, 시간적으로 역사적이고, 또한 그 개별체로서의 독자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그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문학사로, 또는 공간적 관점에서 각 지역 민족문학의 문제로, 또는 미학적 특질을 중심으로 한 장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러 영역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제주문학〉이라는 개념 설정이 과연 가능하며 필요할까.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보다 나은 한국 문학의 이해를 위해, 나아가서 문학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이러한 논의가 다분히 지역주의

* 漢陽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편향, 또는 그 콤플렉스 극복을 위한 감상적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자성도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문학>이라는 개념 설정은 필요하며, 그것을 통한 문학에 대한 논의는, 한국문학의 이해를 위해, 또는 문학의 본질을 생각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역사와 그 문화성이 문학의 본질을 논의하는 데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2. 주변성은 제주문학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의 비실용성, 또는 반이데올로기성은, 그것이 삶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비이념적이며, 비효용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정치적이다(경우에 따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문학의 본령에 빛나간 경우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행복한 시대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불완전함과 고통스러움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그러기에 그것은 항상 당대의 이데올로기의 중심부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이 점은 플라톤이 공화국에서 시인 추방을 주장한 것과, 동양문화권의 중심부에서 소설을 경시했던 의식에서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어느 특정한 시기의 정치성을 띤 문학은 예외이다.).

문학의 주변성은 본질적으로 서사문학의 속성을 설명하는 한 단서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선조 시대 양반소설에 비해서, 비극적인 세계관을 형상화한 전설의 구조를 통해서도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며, 현대소설의 특징 중 인물의 반영웅성도 이 점을 잘 설명해 준다. 그렇다면 중심부에서 떨어져 주변부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루어놓은 제주라는 공간에서 형성된 문학이 바로 주변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 <제주문학>이라는 개념 설정도 가능하며, 그 점은 보편적인 문학의 본질을 논의하는 데도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제주문학의 요건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문학을 개념화할 때 필요한 요건은, 문학 주체로서의 작가와 향유자, 문학 대상으로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와 구조 등이다. 이에 의해 한국문학, 일본문학, 18세기 문학, 19세기 문학이라는 구분이 가능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학은 한국사람이 한국의 사회와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한국사람의 삶을 한국어로 형상화한 장르의 작품이라고, 다소 도식적으로 그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개념의 근거가 되는 주체자와 대상과 언어는 특별한 변별성을 지녀야 그렇게 설정된 개념도 의미 있다.

그런데 제주문학을 하나의 개별적인 개념으로 설정함에 있어, 국가와 국가, 이질적인 공동체 사회나 인종적 차이로 빚어지는 특징있는 다른 문화현상을 단위로 하여 개념화시키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 제주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녀왔지만, 이미 12세기부터 중앙정부의 한 부속 도서로서 정치 행정적 관련을 맺어 왔기 때문에, 본토와 전혀 다른 문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주가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문화의 중심부와는 이질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한국문학에 상대되는 제주문학'이라는 개념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주문학의 개념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논의한 바에 의해서, 주체자와 대상, 그리고 언어적 측면만으로 생각한다면 다소 무리가 따른다. 즉, 제주사람에 의해, 제주의 역사와 제주 사람의 생활을, 제주언어에 의해서 형상화한(된) 작품이라는 식의 개념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동시에 그 의미성도 희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역사화 제주사람들의 삶이 왕조 이데올로기에 의해 살아온 본토 사람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는 조선왕조 국가에 소속된 한 부속도사이면서도, 본토와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 양식을 이루어 내었다는 데, 독자적인 제주문학의 개념 설정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체적인 측면에서, 제주사람들의 삶은 왕조이데올로기와는 다른 가치체계에서 이루어진 점이 많다. 그것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속신앙이 제주사람들의 삶의 근원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점이다. 무속신앙은 왕조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되는 유교적 세계관과는 상반된다. 둘째로, 제주사람들의 의식도 왕조의 중심 이데올로기인 유교 중심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토의 문화는 상당부분 양반문화가 그 중심을 이루도 있음에 반하여, 제주 중심문화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와 문화에서 살아온 제주사람들이 인식한 세계와 삶의 내용은 육지부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문학 또한 한국문학이라는 큰 흐름을 부분적으로 이탈한 양식적 특징을 보유했 수도 있다.

지역적 요인으로, 제주는 본토와는 다른 특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문화

역시 이질적이다. 이는 주체의 성격과 관계 깊다. 또한 설화작품에 내재한 미학적 양식도 특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제주문학의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화작품의 양식에 대해 생각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설화의 범위는, 일반적 정의, 즉 신화·전설·민담과 무속본풀이까지 포함하기로 하는데, 민담은 이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제 제주사람들이 향유했던 다양한 설화양식을 중심으로, 제주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설화양식에 대해서 논의하려 한다.

3. 제주문학으로서 설화

3-1. 제주문학으로서 제주신화

(1) 제주신화에는 개국신화인 삼성신화와 무속신의 내력을 담은 본풀이, 그리고 조상신화 등이 있다. 이 신화들은 모두 제주의 역사적·지리적 조건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한 점에서 제주 특유의 신화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제주문학의 범주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우선 제주도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 국가로서 인식하고, 그 개국 과정을 설명한 삼성신화는 제주의 문화의 연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고유의 문학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삼성신화는 그 이본에 따라 다양하고¹⁾ 중앙 역사지에 한자로 수록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제주의 문화 연원을 설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제주에서 수렵생활을 하는 三神人이 오곡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온 三神女와 결혼하여 농경생활로 정착했다는 것은, 수렵문화 중심을 이루었던 토착문화와 외래의 농경문화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삼성신화는 제주의 생성과 그 문화 양식을 설명하는 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화로서 제주문학의 주요한 자리에 있다.

또한 삼성신화 외에 제주의 형성을 설명하는 설문대할망신화는 그것이 전설화되었지만, 하나의 신화로 볼 때에, 제주 생성은 물론,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1) 현용준, 巫俗神話와 文獻神話(집문당, 1992)에 의하면, 삼성신화에는 高麗史系, 瀛洲誌系, 折衝系 등 여러 이본이 있다고 한다. pp.181-188. 참조.

삶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문학 속에 포함될 수 있다.

(3) 무속본풀이는 제주 무속신의 내력담으로, 굿할 때 祭次로 심방에 의해 구술되는 구비전승 양식의 신화이다. 본토에도 <무가>라 해서 이와 같은 양식이 있다. 그러나 제주 본풀이는 본토와 다른 신앙적 양식적 내용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는 제주문학의 중요한 양식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제주 무속신앙이 본토와 다른 양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달랐음은, 제주인의 주변부적 삶의 양식이 그 신앙을 통해서 지탱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점은, 무속의 성행으로 행정력이 약화되었고, 모든 민속놀이가 무속양식으로 행해졌으며, 전통적으로 도민에 의해서 지내던 한라산신제도 무속식으로 민간주도로 행해졌다는 사실 등에서, 무속이 제주 사람들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점은 각 부락에서 연례적으로 지내는 부락제도 부분적으로 무속화되었으며, 민간 집안에서 조상의 기일에 행해지는 전통적인 유교식 제례도 무속과 부분적으로 접합된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형상목사가 부임한 후에 도민 자체적으로 신당을 철폐하도록 한 일이나, 당시 관에 대한 백성들의 대응양식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무속 신앙이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

물론 제주인의 신관이 본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더라도 특수한 지역성을 갖고 있으며, 그 지역차는 자연, 역사, 생산형태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함은 물론이다.⁴⁾ 더구나 제주는 육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주 자체적인 종교성이 무속을 통해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다른 무속은 무속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제주의 무속은 하나의 종교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고 있을 정도로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그 점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각 마을마다 마을을 수호하는 부락신이 있고, 부락민들은 정기적으로 당을 찾아가 제의식을 거행했던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로서 도민들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무속신에 따른 본풀이도

2) 현길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耽羅文化 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3, pp. 104-105.

3) 이형상 목사의 신당 철폐에 따른 문학적 인식에 대해서는, 위 바로 앞 논문을 참조할 것.

4) 현용준, 濟州島巫俗研究, 집문당, 1986, p. 218

정연하며, 그 신의 조직과 체계가 분명하다는 점은,⁵⁾ 제주 무속이 단순한 무속의 차원을 넘어 종교로서 도민의 삶에 뿌리박혔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주무속신의 특징은 각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당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내력담이 본풀이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들의 본풀이는 제주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제주 당신본풀이는 18개의 주요 모티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지역 당신본풀이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들 모티브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이루어졌다.⁶⁾ 그런데, 그 모티브의 내용은 모두 쫓겨온 신들의 내력과 그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제주인의 삶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는 데⁷⁾ 당신본풀이의 제주적인 특성이 있다. 즉 이들 당신은 모두 쫓겨온 신들이어서 부락인들과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부락의 역사와 부락민의 삶의 조건과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당신들은 제주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며, 그 본풀이는 제주사람들의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현실과 삶을 바탕으로 해서 형상화시켜 놓은 문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제주무속 본풀이는 제주문학의 범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제주 신화 중에 조상신의 내력담을 주조로 하여 본풀이 양식으로 전승되는 조상신화도, 그것이 특정 집단의 내력을 주조로 하면서 조각적인 성격이 많지 마는 제주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3-2. 제주문학으로서 제주전설

(1) 일반적으로 전설은 자연물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한 자연전설, 특이한 생애를 살았던 인물의 인물전설, 역사적 사실을 일반화시킨 역사전설, 집단적 의식을 고취시키거나, 그 집단성을 대상을 통해 형상화시킨 전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설에서는 그 향유자의 현실적, 문학적, 무의식적 욕구가 표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전설에는 통해, 그 향유자는 소속된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식과 양식이 나타나 있다.

5) 濟州島巫俗研究, p. 191.

6)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pp. 110-112.

7) 현길언, 제주도장수설화, 흥성사, 1981, pp. 46-59.

이런 의미에서 제주문학으로서의 제주 전설은, 제주문화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실상이 형상화된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문학으로서의 제주 전설은, 제주문화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실상이 형상화된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 제주무속신앙과 지배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을 형상화한 신앙전설과 제주인의 풍수사상을 형상화한 풍수전설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특이한 역사전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전설은 육지부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제주의 그것은 육지부와 그 구조가 달라, <제주적>인 실상을 드러내었다는 데서, 그 독자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전설들의 특징은 제주문학의 한 본질로 상징할 수 있는 주변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문학으로서의 설화를 규정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2) 제주문화의 특성을 드러낸 설화⁸⁾

제주도는 탐라부족국가시대부터 한반도와 교류를 시작해왔고, 12세기에 들어와서, 고려왕조와 병합되는 과정에서 본토와의 교류를 더욱 빈번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제주목이 설치되면서 중앙정부의 한 변방 행정 지역이 되면서 제주의 독자성은 위축되었다. 정치, 행정, 군사는 물론, 모든 문화가 조선왕조의 중심부문화 영향권에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도권 문화가 아닌, 실제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그 기층을 이루고 있는 주민의식이나 가치체계는, 중심부에 비해 그 지리 풍토 차이에 따른 생활 풍속적 차원을 넘어, 독자적인 면을 형성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그 독자성이 바로 중심부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反중심부, 반왕조적 가치

8) 이 항목은 이미 필자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논의한 것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임을 밝힌다.

風水斷脈說話에 대한 一考察, 文化人類學 10, 한국문화인류학회, 1987.

전설의 변이와 그 의미, 한국언어문학 19, 한국언어문학회, 1979.

힘내기형 전설의 구조와 그 의미, 현평효박사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0.

제주도의 오누이 장사전설, 탐라문화 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2.

蛇神傳說的 考察, 민속학논총 2, 석주선박사교회논총, 간행위원회, 1982.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인식, 탐라문화 2.

제주도장수설화, 흥성사, 1981.

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지면서, 그 점이 제주문학의 독자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주변인의 신앙으로서의 무속과 반 지배이데올로기성

제주의 무속신앙은 단순한 풍습으로서의 무속의 차원을 넘어 신앙으로서의 종교적 성격이 강하였기에, 그만큼 그것은 제주의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는 데 탄탄한 기조로서 자리잡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속에 따른 여러 의례가 정연한 형태로 잔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속본풀이가 굿의 제의적 차원을 넘어, 구비전승되어 하나의 전설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런 전설 중에 특이한 것은 조선조의 중심 이데올로기에 대립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堂神전설들이다. <광정당전설>과 <김녕뽕굴전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두 전설은 무속신앙과 유교 지배이데올로기와의 갈등을 통해서, 제주문화의 독자성과 그 특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이 전설이 주민과 행정지배층의 대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색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설화 중에 <이형상 목사 신당철폐>에 대한 설화의 대략은 이렇다.

(가) 제주에 부임해서, 악습을 고치고 주민을 교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신당을 도민들을 앞장세워 철폐한다. 그는 어느 날 대정 산방산 동북편에 있는 광정당 앞을 지나는데, 마부가 下馬를 권유해도 듣지 않았다(이곳 풍습으로는 신령스런 광정당 앞을 지날 때에는 누구나 하마를 해야 했다.). 그런데 목사가 탄 말이 걷지 못했다. 이목사는 당에 매인 무당을 불러 堂神이 나오도록 굿을 시켰다. 그러다가 당신이 나오자 잠복시켜 두었던 관원들을 동원해서 퇴치해 버렸다.

(나) 어느 날 밤에 이목사에게 폐충이 된 묘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의 묘를 치산해 줄 것을 간청한다. 목사는 그 청을 들어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골충 신령이 다시 나타나 목사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니 피하도록 당부한다. 목사는 권유대로 피해서 堂神들의 복수를 면하고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 이미 그 아들들이 제주 堂神의 복수를 받고 죽어 있었다.

이 전설을 (가) (나) 만으로 생각한다면, 전형적인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公安의 성격을 띤 전설이다. 백성을 현혹시키는 당신을 철폐한 일이라든지, 골충 신령의 청을 받아주어 묘를 치산한 것은 한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응

당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그 결과 악신의 흥함을 피할 수 있었다는 플롯은 당대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구조이다. 물론 이 경우 단순히 폐총이 된 묘를 치산해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절집과 신당을 철폐하는 일과 상대되도록 설정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유다르다. 그런데, (다)에서, 이목사가 화를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당신의 복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결론이 특이하다. 그것이 바로 제주전설다운 점이다.

이러한 신당철폐 전설은 전설은 <김녕뱀굴전설>과 함께 생각할 때 그런 유형의 양식적 특징이 분명해질 것이다.

김녕뱀굴전설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가) 김녕리 동편에 있는 굴에 큰뱀이 살고 있는데, 매년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 뱀에게 정성을 다하여 처녀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야 했다. 만약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정성이 시원치 않으면 뱀이 심술을 부려서 농사를 망쳐놓곤 한다.

(나) 이런 주민의 사정을 듣게 된 용기있는 젊은 판관 서련은 이 뱀을 퇴치한다.

(다) 판관이 뱀을 퇴치하고 제주성으로 돌아오다가 뱀의 흥함에 의해 죽고 만다.

이 전설에서, 뱀이 비록 堂神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매년 정해진 때에 부락민들로부터 정성드려 마련한 제사를 받는다는 것으로 봐서, 부락민이 신앙하는 대상신임에 틀림없다. 판관의 입장에서는 이 신에 대한 주민들의 신앙행위가 민폐로 생각되어 그를 퇴치한다. 이 전설에서도 (가)와 (나)만으로는, 육지부에서 흔한, 용기있는 관원이나 지방수령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귀를 퇴치해서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했다는⁹⁾식의 일종의 公安 전설과 같은 유형이다. 그러나 광정당전설처럼, 이 전설에서도 (다)에 되어서 사태는 역전된다. 즉 퇴치자인 판관이 뱀(당)신으로부터 복수를 받고 몰락한다. 이러한 결말은 堂神의 편에 선 향유자들이 만들어내었다는 점에서 反公安 전설이다.

이러한 두 유형의 전설은 제주인의 反官的 의식의 소산이면서, 또한 주변부

9) 靑丘野談 卷四, 25-26

大同奇聞 卷一, 50. <朴世茂取城隍旗竿燒火>

윗책, 卷二, 16. <金功守越郡撫鬼怪> 등.

적 인간들의 삶을 형상화했다. 또한 이러한 전설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진 육지부 전설과 그 내용과 구조가 상치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전설은 주변부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서의反지배이데올로기성을 시사하는 제주전설의 한 양식적 특징이라 생각한다.

(4) 주변부 삶에 대한 근원적 탐구양식으로서의 斷脈 풍수전설

제주에는 斷脈풍수전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종달전설인데, 그것은 제주문화 형성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주변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근원적 탐구를 대신하고 있다. 이 전설은 제주 전역에 두루 전파되어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풍수에 대해 제주사람들의 관심이 신앙처럼 철저하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한 가문이나 개인의 삶과 관련된 풍수전설들도 많다. 이러한 전설들은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제주문화의 단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제주전설 중 중요한 것이다.

고종달형전설은, 제주는 원래 王候之地인데 이 사실을 안 중국왕이 風水師 고종달이를 제주에 파견한다. 고종달이는 제주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훌륭한 인물이 날 만한 지맥을 끊어버렸다. 그 때문에, 제주에는 샘도 없고, 왕도 인물도 나지 않게 되었다는 일종의 풍수전설이다. 이는 제주 여러 곳에 다양하게 변이되어 분포되어 제주의 지리적 조건과 그 지형을 설명하고 있다. 그 전설의 중요한 모티브가 외부에 의한 斷脈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에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水)인데, 제주에는 그 물이 귀해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외부 강대 세력에 의한 단맥의 결과로 처리되었음을 강조하는 구조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이 전설은, 많은 변이종들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고종달이 단혈의 배경을 설명함
- (나) 경주 김씨 선조가 고종달이에게 명당터를 얻음
- (다) 제주 물혈이 단맥됨
- (라) 단맥의 실패
- (마) 단혈 이후 제주의 변모와 고종달이 실패 후 정황

전설에 의하면, 제주 역사는 고종달이 단맥에 의해 결정지워졌으면서, 또한 한 집안은 고종달로부터 명당터를 얻어서 발복하게 되었다. 즉 개인이나 집단

의 홍망은 전적으로 풍수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에 고종달형 전설 외에도, 풍수로 인해서 한 가문과 인물의 홍망이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육지부에도 풍수단맥 전설은 많이 전해진다. 그런데 육지부 전설은 주로 한 가문의 홍망성쇠를 도덕적 인과성에 의해 설명하거나, 특수한 지명이나 지형의 유래를 설명하는 지명전설, 또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민족적 우월의식을 드러내려는 전설에서, 여러 斷脈모티브를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육지부의 단맥전설은 지명 또는 지형을 설명하는 자연전설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런데 제주전설은 단맥모티브를 중심으로 엮어졌으면서도, 신앙전설로서의 의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데, 육지부 풍수전설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제주사람들에게 풍수는 신앙이었다. 그러기에 조상이 묻힐 땅을 찾아 일생을 보낸 사람들 이야기가 많고, 한 인물의 몰락과 융성도 이 풍수와 관련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종달형 전설 외의 풍수전설은 대부분 특정한 인물의 일생과 관계를 갖는 인물전설들이 많다. 제주사람의 운명이 고종달의 단혈에 의해 결정지워졌음과 같이, 개인적으로도 한 인물의 삶이 풍수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또한 특이한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한 인물의 홍망성쇠가 명당터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성쇠의 이면에는 중심부적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고종달형 전설의 구조와 비슷한데, 「오조리 夫씨 도선묘」, 「명당 한수」, 「문국성과 소목사」 등과 같은 전설이 그러한 예다.

성산면 오조리에 있는 석산봉에 큰 바위가 있다. 夫씨 都先墓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눈에 띄는데, 이 바위가 바로 장군바위였다. 이 바위 기운으로 부씨 집안에 장차 장군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관가에서는, 조사 끝에 장군맥을 끊어 버렸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한수나 문국성은 출중한 인물로 풍채도 좋고 체격이 장군상이었다. 그들이 서울에 가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자랑하고 거침없이 행세하므로, 조정에서는 그들의 비상함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들 조상의 묘자리를 조사한 결과 모두 명당터였다. 이에 그 묘자리를 은밀히 파헤쳐버렸고, 그러자 한수나 문국성은 몰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전설구조는 중국에서 파견한 고종달에 의해 제주 지맥이 파헤쳐어

인물이 나지 못했다는 고종달형 전설과 그 구조가 동일하다. 단지 중국왕을 조정으로, 또 실제 인물이 몰락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고종달형 전설의 바탕이 되고 있는 도민의식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인물의 삶을 통해 더 사실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설은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그 의식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제주문학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5) 非凡人的 일생과 주변부 사람들의 꿈

제주에는 비범한 사람들의 일생담을 담은 전설들이 많다. 육지부 전설이 불특정한 인물이나 자연물에 대한 설명 양식이 많음에 비해, 제주전설은 구체적인 인물을 소재로 엮어진, 즉 비범한 인물의 일생담과 같은 것인데, 이는 전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밀접히 관계되어 만들어 향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제주전설은 리얼리티가 강하다. 이것은 육지부 전설과 다른 특징적 차별성으로서, 제주설화의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풍수전설에서, 한 인물의 흥망성쇠의 단서가 풍수에 있었으며, 그것은 절대권력자에 의해 좌우되는 이데올로기성에 간혀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아무리 좋은 명당터를 잡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데, 주변부 사람들의 고통이 있다. 여기에 장수를 비롯한 비범한 인물들의 삶의 특이한 양식이 있다.

제주도의 아기장수 전설¹⁰⁾의 양식은 특이하다. 첫째로, 아기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유예된다. 육지부 아기장수전설은 태어나서 얼마 안되어 날개가 돋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제주 아기장수전설은 본인이 장성한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이 밝혀진다. 이 점은 그만큼 장수아기에 대한 일반의 의식이 호의적이어서, 그 문제성을 유보했다는 의미이다. 즉 장수아기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날개 돋은 사실에 대한 대응 양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즉 육지부 경우에는 곧 죽여버리지만, 제주 경우에는 날개만을 제거하거나(그래도 당사자는 죽지 않는다.), 또는 날개를 숨겨두고, 장수가 아닌 장사로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한다. 즉 장수를 거부하지 않고 그 장수가 될 수 있

10) 제주아기장수 전설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육지부 전설과 같은 유형으로는 「배락구룡전설」이 있고, 제주 특유의 양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홍염선이야기」, 「평대부대각」, 「한연한배임재」, 「오찰방」, 「이재수」

는 자질만을 거부해서 현실에 적응해 살아가도록 한다는 데, 육지부 전설과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세계관과 삶의 양식은 현실과의 일종의 타협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인이 당대의 지배이념(장수아기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수아기는 곧 죽어야 한다는, 王統強化이데올로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겨드랑이에 날개돋은 아기장수가, 장수가 아닌 장사로서 한 세상 살아가도록 하는 이 전설 구조는, 주변부 사람들의 좌절된 꿈과 그 삶의 양식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육지부전설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6) 전형적인 제주사람 이야기

위에서 논의한 전설에 나타난 제주사람의 삶의 양식은 육지부에 비해 특이한 것이다. 그러나 좀더 보편적인 입장에서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드러난 전설들도 있는데, 이들은 역사적 인물들 이야기로 전하고 있다.

제주의 인물전설은 완전히 가공적인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살았던 인물들의 삶의 양식을 허구적인 모티브를 통해 형상화한 이야기들이다. 그만큼, 제주의 전설은 현실적이다. 앞에서 제시한 날개달린 장수전설의 주인공들도 실제 인물들이다. 육지부처럼, 막연하게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하는 식으로 그 주인공을 불특정 인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두 역사전설이라고 할 만하다.

역사적 인물이 전설화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양식이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전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형성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논의는 다소 다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인물의 삶이 바로 제주사람들의 삶과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제주사람들의 꿈과 욕망의 서사적 표현으로서 그러한 역사적 인물을 설정했을 것이다.

실제 인물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역사인물전설로서 중요한 것은,¹¹⁾ 대부분 실제로 살았던 인물 이야기이다. 인물들 이야기 중에 일부 모티브들은 향유자

11) 「오찰방」, 「강별장」, 「변인태」, 「대포 이 좌수」, 「웃귀 김택」, 「당꺾당장」, 「시흥리 현씨남매」, 「막산이」, 「논하니」에 대한 전설이다. 이들 인물에 대한 전설은 많이 변이되면서 제주 각 지역에 약간씩 다른 이야기로 전하기도 한다.

의 취향에 맞게 적절하게 변이시켜서 처리했는데, 그 변이 양상, 즉 허구성이 바로 제주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문학의식이다. 이는 순수하게 제주사람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4. 정 리

(1) 제주사람들이 향유했던 많은 설화 중에, 제주의 역사성과와 문화,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제주문학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2) 그러한 양식으로는, 제주 형성에 대한 신화, 무속본풀이, 신앙전설, 단맥풍수전설, 장수·장사전설을 비롯한 역사 인물전설 등이 포함된다.

(3) 이들 설화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주변부적 삶을 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제주의 역사·문화성이 형상화되었다는 데 있다.

(4) 이 주변성은 주로 반이데올로기성과 통하는데, 이는 주변부적 의식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5) 문학의 주변성은, 중심부에서 이탈된 세계관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탐구하고 인식한 결과를 형상화하는 것으로서, 보다 정직하게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주변성이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몫을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제주설화가 지니고 있는 주변성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왕조시대 중심부 문학에 맞서 진정한 의미의 문학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 주변성이 문학의 본질을 이루는 한 요소이므로, 제주설화의 의미가 강조되어도 좋겠다.